

남포교회 독서 감상문 대회 수상자

동상 [어린이부]

김보겸 (유치부) 달사베트

김하윤 (유치부) 완두

박하엘 (유치부) 완두

안시연 (유치부) 참 좋은 우리왕

양시은 (유치부) 완두

이은혁 (유치부) 완두

최원석 (유치부) 와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야

최원정 (유아부) 와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야

최원진 (유치부) 와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야

홍서울 (유치부) 완두

[성인부]

송다윤 (성인부) 신학자의 기도

양현정 (성인부) 신앙의 논리

이승희 (성인부)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

이재철 (성인부) 부활을 살라

장애원 (성인부) 같이 있는 부모 가치 있는 아이

정영화 (성인부)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

조경선 (성인부) 그리스도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주완용 (성인부) 부활을 살라

최익환 (성인부) 같이 있는 부모 가치 있는 아이

황준규 (성인부) 톨라이트는 처음입니다만

금상 [어린이부]

주예빈 (초등1부) 틸리와벽

[청소년부]

공정원 (고등부) 똥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성인부]

이성진 (장년부) 같이 있는 부모 가치 있는 아이

은상 [어린이부]

김가은 (초등3부) 너는 특별하단다 3

이하은 (초등2부) 너는 특별하단다 3

정준영 (초등3부) 너는 특별하단다 3

[청소년부]

권우진 (고등부) 혼자 고민하지마

정민영 (중등부) 똥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성인부]

송수창 (장년부)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은경 (장년부)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

<시 상> 성인부_ 12월 29일 주일 3부 예배

청소년부/어린이부_ 12월 22일 성탄 가족의 밤

*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수상작은 남포교회 웹사이트(www.lamp.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부}



틸리와 벽
초등1부 주예빈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다. 1학년 때보다 가방이 더 무거워졌다. 키가 친구들보다 작다. 아빠는 그게 정상이라 하셨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난 항상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신나게 놀고 싶다. 그런데 나도 친구들도 학원에 가야 한다. 함께 놀 시간이 없다. 아빠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서 저녁때까지 놀으셨다 하셨다. 좋았겠다.

언니를 보면 나보다 키도 크고 언니가 입고 있는 교복을 보면 나도 빨리 언니처럼 매일매일 치마 입고 중학교에 가고 싶다. 공부도 나보다 잘한다. 언제나 언니를 보면 부럽다.

나의 꿈은 경찰관, 의사가 되고 싶다. 경찰관은 도둑을 잡는 게 멋있어 보여서 꿈을 가지게 되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의 몸을 고쳐주고 싶어서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엄마가 말해 주셨다. 힘도 있어야 한다고 엄마는 말씀하셨다.

내게는 틸리와 같이 큰 장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아빠는 예빈이는 꿈을 이루고도 남아요. 신경쓰지 말라 하셨다.

토요일이 되면 즐겁다. 하루만 더 자고 일어나면 주일이 되니까 좋다. 교회에 가면 초등부 선생님 볼 수 있어 좋고 친구들을 만나서 좋다. 전도사님과 목사님도 만나고 예쁜 옷들과 구두 신은 권사님과 집사님과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좋다. 유치부 동생들 만나면 더 좋다. 신나게 함께 놀아서 좋다. 동생들이 나를 좋아하고 따라 다녀서 더 기분이 좋다.

남포교회에 도착하면 난 엄마 아빠와 10시 예배를 함께 드린다. 그리고 유치부로 엄마 아빠와 함께 간다. 유치부에 도착하면 난 동생들과 즐거운 시간이 시작된다. 행복하다. 초등부 예배시간이 되어 가면 친구들을 만나서 기쁘다. 지오도 만나서 더 좋다.

틸리가 다른 쥐를 만나서 좋아했던 것처럼 나도 교회에 와서 만나는 친구, 전도사님, 동생들, 목사님, 집사님들이 좋다. 특히 성탄축제를 앞두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울동과 연습하는 시간이 기쁘다. 나는 천사 역할이다. 교회 안에 있으면 기쁘고 즐겁다.

나도 틸리처럼 호기심이 많아서 엄마한테 혼날 때도 있다. 엄마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신다. 틸리처럼 차분하게 생각하고 용기내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내 자신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것이다. 교회에서 기쁨을 받고 학교 친구들에게 가서 더 친절하게 대하고 먼저 인사하는 친구가 되어야겠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 주예빈이 되어야겠다.



나는 쌍둥이이다. 그래서 나에겐 나와 닮아 보이는 쌍둥이 동생이 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특별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나는 쌍둥이 동생과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까지 모두 다르다. 우리는 외모는 닮았지만 여러 가지가 다르다. 엄마 아빠는 이런 나에게 너는 세상에 하나뿐이고 특별하다는 말을 자주 해주셨다. 그런 말을 기억하고 있던 나는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맥스 루케이도가 지은 책이고, 펀치넬로와 엘리 아저씨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엘리 아저씨가 만든 모든 웹믹들은 유행을 따라가려고 한다. 엘리 아저씨가 일부러 다 다르게 만들어주셨는데도 말이다. 초록색 코, 빨간색 코, 파란색 코, 주황색 코, 분홍색 코, 노란색 코. 이렇게 유행이 계속 바뀌는데도 모두 유행을 따라 하려고 한다. 심지어 엘리 아저씨가 만들어준 그대로가 좋았던 펀치넬로까지 유행을 따라 코를 칠하게 된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힘들어서 엘리 아저씨에게 되돌려 달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돌아가는 시간 동안도 아프게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간다.

내가 생각하기에 엘리 아저씨는 하나님을 비유한 인물 같다. 그리고 웹믹들은 우리들을 표현한 것 같다. 결국은 힘들게, 안 좋게 되는 일을 계속하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다. 그런데 되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가 엘리 아저씨를 하나님인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는 엘리 아저씨가 웹믹들을 다 다르게 만들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 안좋은 길로 가려는 우리를 다시 원래 모습대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애쓰시기 때문이다. 내가 계속 안 좋은 길로 가려고 하면 날 원래 모습대로 되돌려놓으려고 매일 일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인상깊었던 부분은 웹믹들이 자기 코를 자랑하려고 코를 높이 쳐들고 다니는 모습이였다. 코를 쳐들고 다니느라 벽에 부딪히고 다른 웹믹들과도 부딪히는데 그렇게까지 자랑을 하고 싶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주 웃겼다. 나 같으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다닐 것 같은데 다들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갈 때, 되돌아가겠다고 마음먹는 펀치넬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계속 따라하려고 하는데 펀치넬로는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난 이 부분을 읽으며 우리를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친구를 미워하고 싫어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이고, 나처럼 특별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를 싫어한다면 하나님도 속상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특별하고 소중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저는 이 책을 읽은 후 요즘 친구들이 많이 입고 있는 롱패딩이 생각났습니다. 왜 친구들은 모두 다 검정색 롱패딩만 입으려고 할까요?

보통 아이들이 대답하길 “뭘, 검정색 롱패딩을 입으면 인싸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누군가 관심을 받고, 그것이 유행이라면 모두 다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진정한 인싸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같아지고 싶어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깔보고 놀리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성취감마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초록색 코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줄까요? 검정색 롱패딩이 진짜 인싸게 되게 만들어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고 심지어 동물조차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얼핏 보면 같아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다르다는 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고민 끝에서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유행과 인기있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겉모습으로 인싸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진정한 인싸가 되어봅시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엘리 아저씨가 만든 웹믹들이 코에 색칠을 하면서 엘리 아저씨가 사람들을 각각의 특징을 넣어 만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엘리 아저씨 옆에 있었던 편치넬로와 루시아는 코에 색칠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편치넬로는 스플린트와 우디와 함께 광장으로 가던 도중 코에 색칠을 하지 못한 웹믹으로 놀림을 받는다. 그래서 편치넬로와 스플린트, 우디는 코에 색칠을 하게 된다.

초록색 코가 유행이었지만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으로 코 색을 바꾸는 친구들이 많아서 편치넬로와 친구들도 똑같이 코 색을 바꾸게 된다. 그러던 도중 편치넬로와 친구들은 코가 아프고 힘들어서 더이상 색을 바꾸지 않고 엘리 아저씨에게 지워달라고 부탁한다. 엘리 아저씨는 편치넬로와 친구들의 코 색을 원래 색으로 만들어주었다. 편치넬로는 자신의 코가 어떤 색이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어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이 좋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난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고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만의 특별한 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특징, 외모, 성격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런 특별한 것을 나는 잘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엘리 아저씨의 말을 잘 들은 루시아의 행동을 칭찬하고 싶다. 왜냐하면 편치넬로와 루시아는 자신들의 외모를 지키자고 함께 다짐했는데 루시아는 유혹을 잘 이기고 엘리 아저씨가 만들어 준 자신만의 특징을 잘 간직했기 때문이다. 엘리 아저씨가 힘들게 나무로 조각해서 만들어 준 웹믹들은 엘리 아저씨의 생각과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최신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외톨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웹믹들과 같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엘리 아저씨는 특징을 없앤 편치넬로와 다른 웹믹들을 싫어하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하나님도 우리를 모두 다 다르고 특별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이 주신 내 모습을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네가 투명인간이 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떠올려 봐.”

이 질문을 접한 후 당신의 머릿속에는 선한 생각이 단 한 개라도 떠올랐는가? 나의 추측에 의하면 아마도 대답은 “아니오” 이다. 이처럼 이 책은 우리가 평소 생각해본 적 없던 신박한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고민하게 만듦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책을 선택하기에 앞서 많은 책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 많은 책들 중에서도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는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유난히 눈에 띄는 제목 때문이었을까? 나는 이 책이 나에게 바쁜 일상 속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주고, 또한 새로운 자극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곧바로 이 책의 첫 장을 넘겼다.

이 책은 크게 ‘행복’, ‘선과 악’, ‘죽음’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무거운 주제들이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세 주제는 항상 사람들의 입에 끊임없이 오르내린다.

공자와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고자의 성무선악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행복, 플라톤이 생각하는 죽음과 사후세계, 그리고 이 책을 읽은 후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풀어내는 나와 같은 독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세 주제들은 언제나 대화의 중심이 되고는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연구된 이 세 주제에 대해 그 누구도 정답이라고 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

“행복해” 혹은 “불행해” 어떠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내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말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해오던 말에 이 책은 마치 친구와 대화를 하는듯 질문을 톡 던진다. ‘사람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질문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은 당연히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 난 분명 기쁘고 즐거울 때 행복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 이 책 역시 나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리고 또 동시에 고민하게 만든다. ‘맞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대신 전제가 좀 불지, 내가 아직 00이 없는데 00만 있으면 난 행복할거야! 이렇게 말이야.’ 마음 한구석에서 따끔한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나는 행복을 감정이 아닌 의무, 또는 삶의 목표로 여겨왔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행복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며 최고선이다,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리

스토텔레스와 조금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내가 이 휴대폰을 가지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거야.”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정말 행복하겠지?” … 나는 항상 당장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미래에 대한 행복을 꿈꿔왔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지금은 조금 힘들고 불행해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내가 추구하던 행복, 내가 정의하던 행복이 정말 행복이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불행하다는 말을 남기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가 스스로 정의한 행복은 놀랍게도 행복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나름의 자기합리화, 자기 위로, 희망고문이라는 소소한 보상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다.

마치 이런 느낌이 들었다. 우리 모두가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데 어떤 사람이 먼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저 앞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얼른 돌아가세요! 여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소리친다고 한들 누가 믿어줄까… 앞서 나간 사람을 향한 우리의 한 마디 “거짓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모두가 갈망한 모든 것을 겨우겨우 손에 넣었지만 정작 그 안에 자신이 가장 바라던 ‘행복’이 없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좌절감과 허무함을 자아낼 수 있을지 감히 예측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외로운 외침을 누구 한 명이라도 귀 기울여 들었다면 우리가 그 허망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비참함의 원인은 무엇일까?

‘너는 선한 사람이니 악한 사람이니?’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이 글의 첫 문장을 장식한 그 질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 적용해볼 수 있다. 3가지의 하고 싶은 일 중에서 선한 생각이 단 한 개도 떠오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악함’의 본성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이게 바로 위에 언급되었던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비참함이다.

또한 사람들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 경우가 많다. 마치 내가 그랬듯이 ‘내가 돈만 있었으면… 목표만 이룬다면 난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라고 하면서 말이다.

과연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가능할까? 백만 원을 버는 사람은 천만 원을 벌기를 원하고,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1억 원을 벌기를 원한다. 소유뿐만 아니라 성취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최고가 되어야 해! 더 크게! 더 높이! 남들보다 더 많이!’ ‘작은 성취가 주는 보람이란 마약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스스로를 몰아간다’라는 책 속 표현이 인상 깊다. 결국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만족을 향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믿으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 이 책은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우리의 행복을 부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이 책의 필자는 이에 대해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해결을 이야

기하는 종교이기 때문이야”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서 그 어떤 기쁨도 죄와 사망 안에서는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좌절 때문에 삶을 망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이다.

항상 하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는 하지만 항상 나의 행복, 나의 꿈을 좇기에 바빴다. 죄 안에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던 나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 책은 제목만 보면 언뜻 우스워 보일 수도 있고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똥을 못 싸면 큰일 나듯이 삶의 이유인 기독교를 만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메시지를 친구처럼 친절하게 전해주는 책이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의 친구들이 꼭 한번 접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이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어서 조심스럽게 추천해본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 ‘성’〉

요즘 세대 청소년들에게 성이란 무엇일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단순히 사랑, 야한 것 혹은 성관계를 떠올릴 것이다. 나도 이들과 다르지 않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를 읽은 후에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혼전순결과 이성 교제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 같은 십대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혼전순결에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실제로 나도 여자 친구와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그 친구도 절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혼전순결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혼전순결을 꼭 지키려고 하는 건데?”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라고 너무도 당연하게 말했다. 그날 밤에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기독교인이니까 혼전순결을 뭐 지키기는 하겠지만 도대체 왜 지켜야 하는 것인지 교회에서는 분명히 성, 섹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 그 선물을 결혼하고 나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왜 유독 기독교만 이렇게 더 보수적인지도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혼자 고민하지 마」의 저자이신 정혜민 목사님께서서는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한 아이의 예를 들어 주셨다. 그 아이는 학생 신분에서 성관계를 갖고 하루 종일 불안감에 떨었고, 너무 불안한 나머지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겨서 삶이 정말 절망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나는 혼전순결을 지키라는 명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을 풍성하고 아름답고 책임 있게 누릴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고 신앙 안에서 혼전순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길 바란다.

다음은 청소년들이 매우 관심 갖고 있는 이성 교제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이 책에 소개된 DATE의 영어 글자를 딴 4가지 필수요소가 매우 흥미로웠다.

먼저 D는 논의 혹은 상의라는 뜻의 Discussion이다. 데이트에서 논의는 데이트에 대해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와의 논의 그리고 연애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논의로 나누어진다. 좋은 멘토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솔직하게 교감할 수 있는 멘토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런 멘토가 아직 없다. 그리고, 평소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피드백 해 줄 수 있는 멘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확실히 멘토가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될 것 같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정 관리를 하기 힘든 학생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애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논의는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랬어?? 나한테 안기럼. 토닥토닥 해줄게~~” 커플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화이다. 아주 꿀이 똑똑 흐르는 사랑이 넘치는 대화로 보인다.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일상을 나누는 대화는

아주 좋은 대화중 하나지만 이런 대화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연인들이 주제를 정하고 의견을 내면서 서로 상의하는 대화가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과 스킨십에 관한 상의이다. 서로에게 맞춰나가는 과정 중 일부다. 지혜로운 대화가 더 깊고 진실된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A는 진보(정보, 수준 등이 나아짐)의 Advance이다. 이성 교제에는 어두운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하는데 시간을 뺏기는 것, 그로 인한 성적 저하, 원치 않은 임신 등이 대표적이다. 어른들의 인정과 보호를 받으면서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진보가 있어야 한다. 교제 전과 후의 내 모습을 비교 대조하며 진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전보다 어느 부분이 성장했는지, 또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나도 대부분의 어른들처럼 학생들의 연애는 시간만 뺏기고 감정 소비만 하는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성 교제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니 내 안에 상대방 입장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당장 조금의 시간을 뺏긴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은 것이다.

T는 절제, 자제의 Temperance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이다. 시간, 감정, 욕구를 절제하면서 삶을 차근차근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하는 파트너와 함께 규칙을 만들어 절제 있는 이성 교제를 해야 한다. ‘시험기간 일주일 전에는 만나는 시간 줄이기(주 2회 정도)’, ‘토요일 저녁은 가족들과 보내기(인증 샷 보내기!!)’ 이런 규칙을 정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 주고 내 시간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전보다 더 건강하고 예쁘게 교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E는 복음의 Evangel이다. 앞에서 본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었다고 해도 복음을 놓친다면 다 무용지물이다. 데이트는 너와 나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가 이성 친구를 만나 연애하는 것도 다 결국엔 믿음과 관련된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건강한 커플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만남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 네 가지 요소(논의, 진보, 절제, 복음)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DATE를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태어나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성과 이성 교제에 대한 이러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크리스천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교회 분위기 때문에 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았던 것 같다.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성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유명가수의 불법 촬영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꼭 한 번씩 뉴스에 등장하는 사건이 성범죄 사건인 것 같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성은 악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자리잡아 버리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실제로 교회 안에 성을 만든 존재가 악마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은 단순히 둘의 성적인 관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의 결실을 통해 생명을 낳아 땅에 충만한 것과 동시에 문화를 창조하고 사회를 만드는 일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 성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알려 주면 좋겠다.

「혼자 고민 하지 마」에 표현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수많은 질문들을 보면서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 성, 섹스에 대한 성경적 설명을 읽어보니 가려왔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내가 궁금했던 혼전순결에 대해, 독후감에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궁금했던 성범죄에 대해 그리고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성에 대해 혼자 고민하고 있는 자들, 올바른 이성 교제에 대해 배우고 싶은 자들, 그리고 교회의 혼전순결 타령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많은 도움 받기를 바란다.



1. 행복

이 책의 첫 번째 내용은 ‘행복은 가질수 없는 것인가?’라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행복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무지개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 OO를 가지게(얻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그 끝에 모든 것을 얻고 나면 비참함밖에 남지 않는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나는 이 가설에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기 때문이었다. 일단 이 가설이 맞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인간)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1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2를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가설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간절함이라는 감정 때문이었다. ‘OO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행복해 질거야’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무언가를 원래 가지고 있었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한 뒤에 얻게 되어서 분명 가지고 있던 것보다는 좋아졌지만 비참함밖에 남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내 삶에는 OO이 부족해’ 라는 생각을 한 뒤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부족한 점이 채워진다면 거기서는 모든 것을 얻은 비참함이 아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노력이다. 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없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면 그 끝에는 이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행복은 무지개의 시작점처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느껴질 것이다.

2.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행복을 가로막는 것으로 첫 번째는 ‘죄’이다. 우리(인간) 중 과연 100% 선한 사람이 있을까? 마음속에는 악함이 1도 없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을까? 과연 갓 태어난 신생아가 죄를 지을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꾸준히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배우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배우고 착한 사람만 보고 살아온 20세 성인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을까? 나는 두 번째에 걸고 싶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라면 확률이 50대 50으로 같아야 되는 게 아닐까? 여기서 사람들은 신생아는 아직 뇌가 발달이 안되어서 그런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같은 환경에서 살아온 20세 성인과 10세 초등학생으로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렇게 비교해도 답은 같을 꺼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만 그건 우리가 자라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만들어졌으니까 받아

들여야 된다.

하지만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찾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감정에 대해 말할 때는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노력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력과 간절함이 있어도 행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 바로 욕심과 죄 때문이다. 인간의 욕심,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고 말했다. 욕심도 그 죄들 중 하나이다. ‘욕심이 왜 죄일까?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인 소유욕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도 반대로 생각해보자 ‘너는 OO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하지만 OO은 저기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OO을 줄 생각이 없고 협상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뺏어오겠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문제인 것은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돈으로 생각해보자. 지금 당신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돈이면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산다는 가정하에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들의 생각은 저 돈이 나에게 있으면 나쁜 짓 안하고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1,000억 원을 가진 사람은 2,0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부럽고, 2,000억 원을 가지게 되면 이제 5,000억 원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을 채우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벌릴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과연 그런 방법을 써서 돈을 얻었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게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여러 생각에 빠져서 행복하기는커녕 불안함, 죄책, 증오, 미움, 등 여러 안좋은 감정들이 생기면서, 더 심해지면 서로 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 인간은 욕심이라는 죄를 가지고 살고, 그 죄는 인간의 행복을 막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욕심이라는 죄보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믿겠는가?

3. 죽음

욕심, 죄 등 이런 것들보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건 신의 영역, 즉 우리같은 인간은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다. 나는 내 주변 사람의 죽음을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바로 나의 아빠의 죽음이다. 나는 이때 6살이었지만 살면서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슬픔과 분노, 그 이후에도 그보다 슬픈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다. 나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생각했다.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아빠를 데려가신 것일까? 아무리 신의 생각이라서 인간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나는 그때의 분노를 잊을 수 없다.

죽음, 우리에게서 욕심과 죄라는 것들보다 우리의 행복을 더욱더 크게 막는 그림자.

위에서는 죄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인간이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불안함과 공포 때문일 것이다.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이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다 해도 천국에 무엇이 있는지는 가본 사람만 알 것이다. 하지만 천국에 가본 사람은 지금까지의 역사속에 한사람밖에 없고 그분도 천국에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다. 그렇다, 그분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예수님이다. 예수, 모든 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심지어 죽은 뒤 3일만에 부활이라는 일을 행한 유일한 인간이자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온 유일한 신이다. 하지만 그분이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님이야말로 더욱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을 모두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예수님을 보면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행동을 하시면서 행복하셨을 것이고 심지어 완벽하게 선한 인간이었다. 그가 우리(인간)와 유일하게 다른 건 무언가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걸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죽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걸 비참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이다.

4. 결론

이 책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 책에서 인간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행복을 찾지만 그 끝에는 허무함만 남는다고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행복하셨다. 그리고 완벽하게 선한 인간이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100% 닮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행동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음에도 자신의 운명을 모두 받아들이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다. 또한 무언가를 원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언제나 만족하셨다. '만족'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원하면서 행복을 찾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자는 말은 비현실적이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을 더 크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인부}



같이 있는 부모, 가치 있는 아이

장년부 이성진

신생아의 자지러지는 울음처럼 우리도 격한 감정 속에서 "간난 부모"로 태어난다. ... 부모가 자녀의 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 곁을 떠나지 않듯, 아이들도 부모의 한계와 부족함을 견디며 그 곁에 머물러준다. ... 부모가 깊은 사랑으로 아이를 감싸듯, 아이들도 그에 못지 않은 넉넉함으로 부모를 덮어주는 것이다. ...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건지, 자녀가 부모를 성장시키고 있는 건지 혼동될 때가 있다. ... 자녀 말고 누가 부모를 이토록 단련시킬 수 있겠는가?

돌이켜 보면 10년 전쯤 집을 이곳 잠실쪽으로 이사하면서 좋은 교회를 찾던 중 우연히 남포교회에 발을 디게 되었고,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에 흠뻑 반해 적을 두게 되었다. 초엽에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중에 "자녀를 아무리 좋다는 학원에 보내도 아이들이 훌륭해지지 않죠?" 하시던 말씀이 귀에 콕 박혀 그 해답을 듣겠노라며 귀를 쫑긋 세우고 매주 주일마다 열심히 설교 말씀에 열중했는데, 결국 망해야 훌륭해진다는 청천벽력의 답을 얻고 나서 발을 빼고도 싶었으나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놔 오도가도 못하고 코가 꿰어, 가장 가까워서 내 속을 썩이는 저 원수를 사랑하는 법까진 아니더라도 참는 법을 어렵פות이나마 배우고, 하나님 믿고 잘된 일이라곤 박 목사님 만난 것밖엔 없다는 말씀에도 아멘 하는 처지가 되었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당근이 부족한 걸까, 아니지 역시 매가 ... 채찍이 부족한 걸까, 무슨 소리야 기도가 부족한 거야, 뭘 걱정해 믿음이 부족한 거라니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 이제 어느덧 아이들은 자라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훌륭해지지 못한 아이들 때문에 한숨만 쉬던 차에, 같은 구역 집사님으로부터 이 책을 소개받게 되어 읽게 되었다.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가정은 부모인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 사랑이 얼마나 부족하고 이기적인 것인지를 매일 깨닫게 해주는 명문 학교다. 동시에 그 부족한 사랑이 자라나게 해주는 옥토며, 오래 견디도록 강하게 단련해 주는 조련장이다.

...

양육은 부모 자신이 틀이 되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바꾸는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위이다. 즉 양육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 자신을 바꾸는 과정이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골육들을 감당해내는 일에 내가 얼마나 철없고 가볍고 부족하기 짝이 없게 굴었는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성경이

무엇을 설명하는가를 살피지 않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주문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을 때렸다.

우리는 of the GOD, by the GOD, for the GOD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존재의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우주의 시공간 속에서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자신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무질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유한자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한계들을 역전시키시는 주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나는 오늘도 힘써 기도드린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질서를 공급받고 소통하는 것만이 행통하는 길임을 늘 잊지 않기를 말이다.

어느 책에서 읽은 것처럼, 사랑이란, 생성과정인 우주의 리듬을 깨닫고 합일체가 되는 느낌을 전해주는 부드럽고 미묘한 힘이다. 그 뒤에 드리워진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랑은 우주에서 물리적인 체류를 하게 하는 어떤 기본계획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사랑이란 그 우주적 과정이 궁극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모든 물리적 실재를 이끌어가는 자연적인 리듬의 흐름에 전적으로 무조건 굴복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질그릇같은 우리의 인생에 담아내는 싸움에 매진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께서 맡기신 이 은밀하고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여, 저희들 하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만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 감히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려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어찌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함부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제 압북나루에서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씨름과 마주합니다. 기꺼이 야곱과 씨름해 주시고 저주시고 그리고 축복까지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나태와 미련함대로 갚지 마시고 주의 은혜와 공화로 우리를 도우사, 주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신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온전히 주께 맡기웁니다. 아멘.



〈평신도의 열심〉

작년 12월, 주보를 보고 이런 제목의 책을 교회에서 추천해 주셨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꼈다. 법칙 안에 우리를 넣기보다는 법을 만드시고 집행하시는 인격체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당시 주보에 있던 한 줄 평이 멋지지 않았다면 ‘이번 달은 짱이구나’ 하고 넘어갔을지 모른다. 당시 한 줄 평은 이러했다. ‘아무리 많은 명분도 하나의 존재를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도 명분을 세우고 지키려는 우리와, 믿음의 자녀라는 존재를 세우고 성장시키려는 과정이 부딪혀 만들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악행과 음행과 치우침의 반복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역사 -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인생이며 교회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교회가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워놓은 명분, 가치, 최선, 순결함, 지극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은혜이다.

책이 이야기하듯 삶은 혼돈이고 고통이다. 인본주의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인문학도 고통을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는 것외에는 답을 내놓지 못하였고, 예술 역시 스스로를 파괴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분명하다.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를 읽으며 폭풍우 가운데 읍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신 읍기의 하나님이 떠올랐다. 이 책은 단지 자신의 약점을 알고 받아들이고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로토닌의 작용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장부로 만들어 가신다.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 앞에 서는 것이다. 내가 방주를 지어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널 수 없더라도, 더 좋은 것과 생산적인 질서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읍과 같이 자신의 태어남을 탓하는 날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존재적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점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나는 〈평신도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다.

인문학은 왜 인간에게도 물결이 있는지, 왜 오늘의 괴로움은 부끄러움인지를 묻는다. 나의 실패와 악행과 음행 위에서 움추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종용한다. 근거가 없는 모래성 같은 자존감은 수업에 수업을 받고 더해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대장부가 아닌데 대장부인 척 해야 하는 삶이라면 그 괴리를 어디서 메꿀 수 있을까. 결국 체념과 겁냄과 두려움과 자신을 향한 손가락질과 명분뿐인 자신감 속 어

던가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비난하며 비난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반복해야 하는 이유, 거짓을 말하고 거짓에 당하는 이유가 결국은 존재적 불완전함을 가리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것임을 작가도 지적하고 있다. 작가의 말처럼 낙원에서는 모두가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낙원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혼돈과 고통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는 존재로 만들기로 작정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작가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규칙만을 남기셨다. 그리고 최소한의 힘(인내가 힘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은 아니겠지만)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양육 방식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면 일말의 반항심이 생길지는 몰라도 어쩌면 삶을 이해하는 폭, 인내와 연단의 시간에 대한 기쁨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았을까? 고통과 혼돈이 절대자의 선한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마치 고진감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 이야기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생겼다.

결국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런 명분과 이런 방법과 이런 법칙들이 우리의 존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이유,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내버려 둘 수 있는 이유,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고 남성이 여성을 사랑해도 되는 이유는 모두 우리는 명분이 만들어가는 존재, 무의미한 고통과 혼돈 속에 있는 존재, 로봇처럼 조정하듯 비인격적 법칙 앞에 시험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썼을 때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열심을 부르짖고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구호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로 치환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실존은 무엇이며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보다 이번 전도대회에는 몇 명의 새신자가 왔고 나는 통독을 몇 번 했고 방언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교회를 나도 겪어보았다. 종교적이고 도덕적 기준 위에 세워진 행동강령은 사회를 나온 곳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나는 의지력이 약했고 자책과 포기 속에 외형은 부풀리며 큐티책만 넘겨갔다. 그리고 나와 같은 신자들이 꽤 많았는지 대형 교회는 많아지고 성장했지만 한국 교회는 외형은 커졌지만 미소를 잃어갔다.

평신도의 열심은 교회의 사역에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평신도의 열심은 방정리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식당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는 신분을 내세우는 것이다. 즉각적 구원이 이루어낸 신분의 변화가 나의 자유와 책임을 통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며 나는 왜 웃을 수 있는지, 바보의 자리에 서도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와 내 가정의 열심이 되기를 바란다.



안녕하십니까? 본회퍼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책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를 읽은 독자입니다. 제가 한 번 뵈 적 없는 목사님께 편지를 띄우려 작성하기까지는 망설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짐작만으로 전시 중에 영적 전쟁터를 무사히 지나 목사님께 제대로 전달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낸 것은 목사님의 책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를 읽으며 받았던 감동을 전달해드리고 여전히 의문이 가지지 않고 남은 생각들을 꼭 묻고 나누려해서입니다.

올해 초 서점에 들렀을 때 여러 책 중 목사님의 이 책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비겁'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겁이란 단어를 크게, 그것만 다른 서체로 강조하셨더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이란 단어를 더 붙이다니 전 제목을 읽자마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책 제목을 읽으며 스치듯 수치심과 죄책감, 자기 반성과 함께 상반된 작은 분노를 안겨주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감정은 책 제목 때문인가? 아님 기독교인으로서의 오랜 습관적 태도인가?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기독교는 비겁한가를 정면에서 묻는 것이 용감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론화시켜 비겁함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책 표지의 물음은 내 속에 다른 여러 물음을 만들며 가슴에 총구를 겨누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강렬하게 시작했던 목사님의 책은 의외로 작고 문장도 짧았습니다. 글도 어렵지 않았구요. 그냥 가볍게 한숨에 끝까지 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책의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를 겨우 채운 글들은 책의 모양새처럼 작지도 않았고 제가 쉽게 아는 척할만큼 알팍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글은 짧은 글이었지만 어느 단어 하나 버릴 것이 없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히는 말들이었습니다. 글 하나를 읽고 가슴속에서 주르륵 스크롤바가 내려오듯 엄청난 글이 펼쳐졌고 그 긴 글의 생각의 무게에 벽차 글 하나를 겨우 읽고 잠시 책장을 덮어야 했습니다.

다시 책장을 열어 다시 그 글을 읽었을 때 알았습니다. 포토그래퍼가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고르듯이 어떤 말로도 대체되지 않는 가장 적절한 단어만을 골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음을요.

목사님에 대해 들은 어두운 소식 몇 가지는 히틀러를 반대하는 조직에 가담하셨다가 지금 옥중에 계시다는 것이었고 어쩌면 앞으로 더 상황이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슬픈 소식이었지만 목사님의 글을 읽으며 행동으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습 이어서 놀라기도 하고 처한 현실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의 생각들을 얼굴을 대면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더더욱 안타깝더군요. 그런 중에 옥중에서 글을 쓰기 힘든 사정 때문에 작은 몽당연필과 종이 몇 장만을 가지고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아껴서 꼭꼭 글을 눌러 적고 계신 모습을 상상해보았습니다.

글 하나를 읽고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시시 켈렁한 직장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나 인간관계의 기술, 사랑의 조건 등등의 첫째, 둘째로 시작되는 긴 글들은 저의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었지만 목사님의 그 짧은 글은 밤에 잠이 들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다음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글 너머로 수십 장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검색어로 단어 하나를 치면 관련정보가 주르륵 올라오듯 꼬리를 물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질문에 답을 달아보았지만 그럴수록 목사님의 간결하고 강렬한 문장들과는 달리 비루하고 시시한 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전 이미 제대로 된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제가 의문을 가진 많은 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외면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진실을 찾겠다고 사방을 헤매고 있는 것이 저입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러셨지요. 진실을 안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아는 지식과는 다르며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매일 인터넷과 SNS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위험이 사실 제가 처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책을 처음 들었을 때 가졌던 의문도 그런 류의 정보와 한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길 간구하는 응원일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예상은 멋지게 빗나갔군요. 그래서 목사님께 되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몸은 자유로운 곳에 있지만 늘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잠시 그렇다가 다시 눈에 보이는 세계로 들어와 스스로를 옥에 가둡니다. 목사님은 몸은 갇혀있지만 영혼은 누구보다 자유롭다는 것을 책을 보며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전 그리스도인으로 잘못 살고있는 것일까요? 전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목사님보다 더 오래도록 해도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여기서도 명쾌히 말씀하시네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여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저 멀리 인간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가치를 둡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세상에서는 인간을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약하고, 이기적이고 타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딛고 서야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살면 억척스럽고 바보스럽고 고지식하고 경제 관념이 없고 생각없는 사람으로 놀리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그래서 전 한동안 우울했습니다. 정답은 분명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긴 힘들고 그래서 살 수 없고 그런데 그건 답이 아니라 늘 우울했습니다. 구역공부에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영어로 “Acts”라는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오늘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비겁하게 숨고, 사람은 약하다고 고백으로 포장된 위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목사님은 사람답다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시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의 회귀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돈을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돈을 받아 정상이 된 것이 아니라 다리로 일어서 걸으며 정상이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구역에서 정상이란 상태에 대해 생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 정상이 된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전의 모습이겠지요. 사물을 보면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활기차며 지치지 않고 해보지 않은 일에도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며 모든 생물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우러나는 아름다운 모습 말입니다. 그것이 아마 정말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지금은 선악과 범죄 이후 조금씩 지치고 무능해지고 나약한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나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보려 하지만 한 시간을 버티든, 하루를 버티든 결국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지금 한창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냥 놔둬도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갈 것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목사님의 다 음 구절이 영화 <매트릭스>의 알약처럼 현실을 진짜로 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무대로 활동합니다. 세상에 적응해 함께 일하고 영향을 끼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풀 죽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기쁘고 쾌활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위로보다 가슴에 박히는 이 말이 더 좋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이야길 듣게 되어 감사하다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목사님께서도 옥중에서도 건강 조심하시어 전쟁이 끝나는 날 뵈었음 좋겠습니다.